

■ 양진석 해피니스CC 회장,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한 나눔 경영·상생 실천"

1억원 이상 고액 기부로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이정권 DH글로벌 회장도 동참…기부문화 확산 앞장

양진석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회장(이호원·광남일보 회장)이 4일 1억원 이상 개인 고액 기부자 모임인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며 지역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이날 가입식은 전남 나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에서 열렸으며, 양진석 회장을 비롯해 광주 신규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197호 회원이 된 양 회장은 제17대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장으로, 그간 나주교육진흥재단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특히 최근 3년간 매년 2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지속적인 사회공헌 의지를 보여왔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주민 후원, 소방관 자녀 장학금 지원, 골프장 인근 경로당과 마을회관 물품 기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어가고 있다. 지

이정권 아너 회원은 "기업의 사회적 책



양진석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회장(이호원·광남일보 회장·원쪽 세번째)이 4일 전남 나주 해피니스컨트리클럽에서 열린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197호 회원 가입식에서 이정권(주) DH글로벌 회장(198호 회원·왼쪽 두번째),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임은 일회성 기부가 아니라 지속적인 실천에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의 소사이어티 동시 가입은 지역사회에 큰 미 있는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울림을 주는 나눔의 실천"이라며 "두 분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가 되길 바란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나주시 다도면에 위치한 해피니스컨트리클럽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은 물론 다른 지역 대표 상

생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녹색에너지연구원 '대한민국 ESG 지속가능경영대상' 대상

저탄소 경영 실천·지역사회 상생협력 등 ESG 선도 고평가

녹색에너지연구원(원장황규철)은 4일 (사) 한국환경경영학회가 주관한 '2026 대한민국 ESG 지속가능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환경(E), 사회(S), 지배 구조(G) 전 분야에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실질적인 ESG 경영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전남도 산하 6개 지자체 대상 태양광(6330㎾)·태양열·지열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산업단지 입주기업 맞춤형 ESG 경영 컨설팅 및 목포시 기후미래 청년포럼 운영, 지역 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은 4일 (사) 한국환경경영학회가 주관한 '2026 대한민국 ESG 지속가능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기관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영을 기관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아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 온 결과다"며 "앞 으로도 저탄소 경영과 지역사회 상생을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5·18 가두방송 전옥주씨

'2월의 유공자' 선정



"두려움 앞섰지만 문화발전에 앞장서볼 계획"

사단법인 대동문화재단(대표 조상열) 운영이사회는 3일 오후 6시 광주 훌리데 이인호텔 별관 대연회장에서 이용범 제7 대 운영이사장 취임식을 거행했다. 새로 취임한 이용범 운영이사장은 (주)프로텍과 (주)옵토닉스, (주)하이텍산업개발의 대표이다.

광주시피크골프협회장과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장과 대동문화재단운영 이사회 부이사장, 대동문화재단 설립 30 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 대동전통문화 대상 운영위원회장을 맡아 왕성한 메세나 활동과 활발한 사회활동은 물론, 문화예술진흥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여왔다. 이 사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날 취임식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진행됐으며 같은 테이블에 앉은 회원끼리 서로 간 인사를 시작으로 이임사와 취임사 공로패 증정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제6대 김성후 이사장과 김용호 운영이사가 문화발전에 지대한 공을 평가받아 광주시장 표창장을 수여 받았고, 신규 운영이사 60여 명의 위촉장 전달식과 대동메세나골프회장, 청장년위원장, 시무총장 등 대동문화재단 운영이사회 신임 임원 위촉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용범 운영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처

음에 이사장직 제안을 받고 과연 이 큰일을 해낼 수 있을까 두려움도 있었지만 역대 이사장님들의 뜻을 받아들여 정말 의미 있고 값어치 있는 문화발전에 앞장 서볼 계획이다"고 포부를 말했다.

김성후 이임 이사장은 이임사에서 "이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단체 대동문화재단에서 문화메세나 운동에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이 너무도 행복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관심과 참여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기꺼이 해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상열 대표이사는 "대동문화재단은 1995년 설립 이후 30년 동안 전통문화의



이용범 이사장

발전을 위해 매진해온 국내 대표적인 민간단체이다. 재단은 운영이사회의 지원에 힘입어 전통문화지킴이로써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 재단이 이처럼 틔우는 기반을 다진 것도 그동안 여러 틔우는 이사장님들을 모셔왔기 때문이며 제

6대 이사장으로 임기를 마치신 김성후 이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신임 이용범 이사장님은 지역 사회 전반에 적극적인 참여와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훌륭한 분이기에 기대하는 바도 크다. 대동문화재단의 제7대 이사장직을 맡아 주신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

다. 정체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문화 저변 확대…시민 문화향유 기회 증진

광주비엔날레·지역문화교류재단 업무협약 체결

(재) 광주비엔날레는 지역문화교류호 남재단(이사장 노경수)과 광주 지역문화의 저변 확대와 시민 문화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지역문화교류호 남재단은 (재) 광주비엔날레와 지난 3일 광주 지역문화의 확산과 시민 참여형 문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시민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의 연계 및 협력 △지역 문화예술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및 정보 공유△'문화도시 광주' 가치 확산을 위한 각종 시민문화사업의 상호 지원 △기타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 협력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지역문화교류호 남재단의 시민 기반 문화 활동과 광주비엔날레의 국제적 네트워크가 결합된 사례로, 지역 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확장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지역문화교류호 남재단은 광주비엔날레와 협력해 지난 1월 시민 도슨트 양성과정을 운영하며 시민 참여형 문화교류의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노경수 지역문화교류호 남재단 이사장은 "지역社会의 따뜻한 지지와 참여에 비

엔날레의 국제적 위상이 더해져, 광주 시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플랫폼이 되도록 가고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